해방 후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연관

-□1945년 8·15□□표풍□□해방□을 중심으로-

김복순*

〈차례〉

1. '대중 유토피아' 재현의 차이와 대중성의 젠더
2. 대중성의 재편과 재미의 젠더화
2.1. '대중 주권'의 탐색과 '공적' '공통감각'으로서의 재미
2.2. 여성 주체 양상의 변모와 관능성, 폭력성, 야만성의 강화
2.3. 호모아메리카나의 탄생과 한미관계의 젠더적 구조
3. 결어

〈국문초록〉

□1945년 8·15□□표풍□□해방□을 중심으로 해방 후 서사장르에서 대중성이 재편되어 가는 양상 및 젠더 연관을 검토해 보았다. 정치사 중심, 사건사 중심, 대표성 중심의 거대사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중들에 의한 '대중 유토피아 건설' 의지 및 '대중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등장인물들의 선택 및 젠더 연관을 고찰해 보았다.

□1945년 8·15□□표풍□□해방□은 실천→모색→회피 및 테러라는 대중 주권의 변모과정을 드러내면서, 아직 '공적 영역'에 대한 '공통감각으로서의 재미'를 전제로 하는 재현 방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1950년대 중·후반의 소설에 나타난 재미의 '사적 영역화'라는 양상과 매우 다른 지점이었다.

* 명지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여성 주체 형상화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모가 확인되었다. 「1945년 8·15」에서는 '정치적 여성 주체'이면서도 연애의 주체가 그려졌다면, 「표풍」에서는 정치적 여성 주체로서는 탈락되며 연애의 주체로만 남게 된다. 「해방」에 이르면 정치적 주체도, 연애의 주체도 아닌 성적 대상화의 영역으로 밀려 나게 된다. 이 과정은 선정성과 폭력성, 야만성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좌익 대중 주권자인 화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반공주의 가부장제'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재미의 젠더화와 연관되어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영어자본을 토대로 신분 상승 및 부의 축적을 도모하려는 '호모아메리카나'가 대거 등장하였는데, '지주-기회주의자'에 이은 '제2의 기회주의'적 인물유형으로 배치되었다. 한미관계는 동양/서양, 한국/미국, 여성/남성의 유비관계를 형성하면서 피식민지/신식민지 관계를 유포하고 있어 한미관계의 젠더적 구조를 확인시켜 주었다.

해방 후 한국에서의 대중 주권에 의한 대중 유토피아의 탐색은 정치 문제 등의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국가'가 배제되지 않았고, 젠더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대중 유토피아 탐색의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준다.

핵심어 : 대중 유토피아, 대중 주권, 공통감각, 재미, 여성 주체, 호모아메리카나, 재미의 젠더화, 한미관계의 젠더

1. '대중 유토피아' 재현의 차이와 대중성의 젠더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민족해방이며, 다른 하나는 군국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회복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민족해방의 측면을 앞세워 생각하면서, 자유회복은 민족해방에 당연히 따라올 것[1]으로 보면서 너도나도 '대중 유토피아' 건설[2]의 꿈을 키우면서, 개인적·집단적 차원

에서 대중 주권의 정치적 욕망을 표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중 유토피아 건설'이 '대중 주권'이라는 시각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았다. '남과 북이 갈리고 이틀 새 정당이 45개나 생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떠들어 대고' 하던 질풍노도 속에서도, 대중 유토피아는 정치적 인물이나, 정당 위주로 '대표성' 속에서 언급되었다. 당대를 살았던, 대중들의 대중 주권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사 중심, 사건사 중심, 대표성 중심의 거대사 속에서 언급되었다.

해방기는 '대중 주권'들의 치열한 모색 속에 진행되었다.[3] 대중들의 주권의식은 당대에 새롭게 재발견된 '공통감각'이었다. 공통감각이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판단력으로서, 감성과 이성이 결합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 주권에 토대하여 있으며, 아이덴티티, 제도, 의식 등이 모두 공통감각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통감각을

---

1) 김기협, 『해방일기 1』, 너머북스, 2011, 5쪽.

2) Susan Buck Morss, 掘江則雄 譯, 『夢の世界とカタストロフィ』, 岩波書店, 2008. 수잔 벅 모스의 '대중'이란 개념은 '국민' 대신 선택된 개념이며, '국가' 대신 '사회'를 분석 단위로 보고자 하는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 수잔 벅 모스에 의하면, 20세기는 '대중'에게 새로운 유토피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세기였으며, 대중 유토피아의 경제적 토대는 도시화에 기반한 대량생산의 산업화 체제였다. 하지만 냉전의 종결, 신자유주의적 제 전개에 의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는 대중 유토피아가 '소멸'된 시기라는 것이 수잔 벅 모스의 진단이다. '대중 주권'이란 개념은 정치만이 아닌 경제적 · 문화적 · 사회적 상상력의 총합의 의미를 지니며, 아울러 대중성 및 젠더와도 연관된다. 또 정치적으로는 '대중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토대해 있기 때문에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모색과 실천이 제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권별, 시기별로도 다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양과 다른 경로라는 점에서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주체로서의 '대중'에 주목하고 그들의 유토피아 모색을 검토하고자 한다.

3) 당시 대중 주권들의 열망은, 김기협, 『해방일기 1』, 『해방일기 2』, 너머북스, 2011, 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으며, 도서 출판만 해도 1년에 1천종이 넘을 정도로 '독서의 해방'을 맞았다고 한다. 공급자 측은 '도서 공급으로 건국사업에 동참한다'는 생각이었고, 독자들은 '제 발로 책을 찾아' 와 사흘만에 중판에 돌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한다(이중연, 『책, 사슬에서 풀리다』, 혜안, 2011 참조). 또 당시 대중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은 '삐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식 · 정선태 편저, 『삐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소명출판, 2011 참조.

탐구하는 일은 현대지식체계의 재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4] 또 소설은 등장인물이라는 구체성을 띤 인물로 하여금 대중 주권을 '행동'하게 함으로써, 또 서술자로 하여금 대중 주권의 가치 및 세계관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구성되는 형식의 장르이다. 따라서 '대중 주권'의 측면에서 각기 대중 유토피아를 꿈꾸며, 미래를 건설하고자 했던 판단의 한 예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이 시기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형태로 정착되어 있었다기보다 다양한 이데올로기, 다양한 대중 주권들이 충돌·경합·길항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노동문제, 토지문제, 여성 문제 등이 하부에 포진되어 있었다. 이 때 '방법론'에 따라 하부의 제 문제 중 어느 것이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될 수도 있다. 나라 만들기의 담론 중 핵심적인 쟁점은 각 방법론에 따라 '계급문제' 또는 '친일 잔재 청산과 외세 배격', 그리고 '봉건 잔재 청산'이었는데, 하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얼마큼 진행·전개되었는가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한다.

하부 의제 중 하나로 젠더 연관을 들 수 있다. '대중 주권' '나라 만들기의 방법론', 민족문학 건설 문제에서 대중성과 젠더 연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계급문제, 친일 잔재 청산과 외세 배격, 그리고 봉건 잔재 청산 과제는 민족 정체성 수립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여성문제가 이들 과제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 각 소설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어 있는지는 각 방법론의 '재현'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으며, 특히 신문연재소설의 기반 중 하나인 '대중성'의 젠더에 대해서는 전무한 편이다.

대중성은 '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대중성에도 젠더가 개입되어 있다. 대중성은 내용과 형식의 양 측면에서 생산·유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형식에 해당하는 시점, 플롯, 문체, 환경, 대화적 구성 등에도 젠더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선(및

4) 나카무라 유지로, 『공통감각론』, 민음사, 2003, 7~28쪽 참조.

서술자)의 젠더, 플롯의 젠더, 인식방법의 젠더, 읽기(및 감상, 관람)의 젠더[5] 등이 그것이다.

대중성이란 대중에게 수용되는 미학적 장치 및 효과의 총합으로서 내적 · 외적 형식 및 내용에서 발생되며, 대중의 공통감각에 즉자 · 대자적으로, 주 · 객관적으로 조향하는 여러 요소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작가의 전략에 의해 기획되기도 하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용자에 의해 직조되기도 한다. 소위 본격예술도 대중성이 있어야 수용된다는 점에서 진지성/ 통속성, 생산/소비의 이분법을 아우른다. 통속성으로 일컬어지는 해학성, 폭력성, 관능성, 환상성, 감상성을 포함하며, 재미에 의해 구축되지만, 거칠게 말해 '재미'라 보아도 무방하다.[6]

해방 후부터 1950년대 후반을 지나 현재까지의 서사를 검토할 때 일정한 경향을 목도할 수 있다. 그것은 전후의 서사들이 대체로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잇슈 및 논점에 대해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후에도 1980년대를 제외하면 정치현장 등 공적 영역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극히 예외적인 작품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서사는 당대의 첨예한 정치적 문제들을 서사의 핵심으로 다루지 않았다.

반면 재미가 없어 독자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저자와 상의하지 않고 신문사측이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한 일은 여러 번 일어난 바 있다.[7] 이러한 시대적 정황들은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

5) 시선(및 서술자)의 젠더에 대해서는 김복순, 「군사주의의 젠더 전유 양상과 여성 만보객-「야행」 소설과 영화」, 『대중서사연구』12집, 2004; 「만보객의 계보와 젠더의 미학적 구축」, 『현대문학의 연구』제33집, 2007.11, 63~110쪽 등을 참조, 플롯의 젠더에 대해서는 「강경애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제25집, 2008, 311~342쪽을 참조, 인식방법의 젠더에 대해서는 「감각적 인식과 리얼리티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23집, 2004, 265~295쪽.;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 『현대소설연구』제32집, 2006. 243~282쪽을 참조, 읽기(및 감상, 관람)의 젠더에 대해서는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2004, 봄, 여름호, 27~53쪽 참조.

6)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제26호, 2011, 229-261쪽.

7) 김말봉의 『태양의 권속』이 139회만에 게재중지 되는 사건이 1952년에 이미 있었

그릴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미의 사적 영역화'[8]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개연성을 지닌다. 즉 공적 영역에서 제기된 당대의 잇슈들은 대개 배경으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언급되지조차 되지 않는 대신 가정 문제, 성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서사에서의 대중성 및 재미는 사적 영역화 하는 경향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정치적 잇슈는 배제하고 기껏해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형태[9]로 전개될 수 있다.

해방 후의 서사들은 당대의 잇슈를 과감하게, 특히 정치적 논제들을 서사의 핵심으로 위치짓고 그에 대한 대중 주권 및 대중 유토피아 구상을 보여주려 하였다. 해방 후 최초의 장편인 김남천의 『1945년 8·15』(『자유신문』, 1945.10.15~1946.6.28)과 단정 수립 직전에 발표된 염상섭의 『효풍』(『자유신문』, 1948.1.1~11.3), 단정 수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되어 전쟁 직전에 탈고된 김동리의 『해방』(『동아일보』, 1949.9.1~1950.2.16)[10]은 당대의 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대중 주권의 문제 및 대중성·재미와의 연관을 어떻게 접근시키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서사경향에 모종의 기원 역할을 담당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으며, 김팔봉의 「군웅」이 『서울신문』사 측에 의해 중지당한 것은 『사랑』이 연재되기 바로 한 해 전(1955.11)이다. 연재중단 조치의 사유는 두 경우 모두 흥미가 떨어지고 독자들의 호응이 격감되었다는 것이다. 소설의 흥미 내지 재미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도 남는다. 작가들은 '한국작가권익옹호위원회'를 결성하여 『서울신문』에 집필거부를 선언하는 '61인 성명서'로 강력 대응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이봉범, 「1950년대 신문 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29집, 2010, 261~305쪽.

8)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제26호, 2011, 229-261쪽.

9) 이러한 태도는 식민지 시기, 1910년대부터 존재하는 뿌리깊은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이광수와 현상윤의 논쟁 참조. 김복순, 『1910년대 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10) 세 소설에 대한 판본은 『1945년 8·15』의 경우 작가들(2007)본을, 『효풍』은 실천문학사(1998)본을, 『해방』은 『어문논총』제38~39호, 2003)본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세 소설은 각기 좌파, 중간파, 우파의 대표적인 소설로 언급되어 왔다. 발표 시기가 각각 해방직후, 단정 수립 직전, 단정 수립 후인데, 각 시기의 ‘주류’에 해당하는 정치지형도가 좌파, 중간파, 우파였다[11]는 점에서 세 소설은 각 단계의 대표성을 담지한다[12]고 할 수 있다. 또 신문소설들로서 대중 유토피아 구상에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동일 작가 내에서도 유사한 변모를 보인다[13]는 점에서 변모 양상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위의 세 작품은 단지 대중 유토피아 및 대중 주권의 차이만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발표 시점의 ‘지배적인’ ‘방법론의 당위’의 차이를 표출한다. 여기서는 ‘대중 유토피아 구상’ 및 대중 주권의 차이가 당대의 ‘건국 방법론’과 ‘지배적인 방법론의 당위’로 질서화・담론화 되는 각 단계에서 재현의 차이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방법론들이 토대하고 있는 대중성의 개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대중성의 젠더 및 재미의 젠더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

11) 당대의 정치지형도에 대해서는 강만길 외 편, □한국사□17, 18, 한길사, 1994 참조. 문단 내의 조직, 세력 구도 및 문학론에 대해서는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및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참조.

12) 해방기의 대표소설로 언급되는 것 중 이기영의 □땅□이 있으나, 1948년도에 출판되었고, 농촌문제를 대상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세 소설은 서사공간이 ‘도시’라는 공통점도 있다.

13) 예를 들어 김남천의 경우,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본 논문의 소설들이 보이는 대체적 변모를 거의 동일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다. □1945년 8・15□과 □동방의 애인□거리는 □1945년 8・15□과 □효풍□또는 □해방□의 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또 염상섭의 경우도, 단정 수립후에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효풍□과 차이가 분명한 소설들을 발표하게 된다. 김동리의 경우 해방 직후부터 두 종류의 소설을 발표하였지만, 한국전쟁 이후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해방□류의 소설은 발표하지 않게 된다.

2. 대중성의 재편과 재미의 젠더화

2.1. '대중 주권'의 탐색과 '공적' '공통감각'으로서의 재미

해방 직후는 그 이후의 시기와 달리 정치현장이라는 공적 영역을 직접 다루면서 대중 유토피아 구상을 펼쳐 보였던 시기였다. 즉 정치, 이념, 제도, 국가 건설 등 공적 영역에 관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면서 '공통감각'을 만들어 갔던 시기였고, 이들 소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며 일상성을 만들어 갔다. 흔히 이념, 제도 등의 공적 영역에 관한 소재는 일상성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쉬우나, 해방 직후의 소설들은 '공적 영역'에 관한 '세부'들을 공통감각으로 유지, 확대 발전시키면서 그 속에서 영위되는 일상적 삶을 보여 주었다.

□1945년 8·15□는 해방후 조선문학가동맹이 내세운 '진보적 리얼리즘'에 토대하여 창작된 장편소설이다.[14] 김남천의 해방 후 첫 장편소설일 뿐 아니라 해방후 이 땅에 발표된 최초의 장편소설이다. □풍□역시 해방 후 염상섭의 첫 장편소설이며, 이후의 염상섭 소설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15] 의미있는 작품이다. □해방□역시 김동리의 첫 장편소설이며, 해방 후 김동리 소설의 두 경향 중 하나를 대표하는[16] 소설로서 의미 있다. 세 소설 모두 일정 시기 동안 연구대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17]는 공통점도 있다.

---

14) 조선문학가동맹은 당대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시대적 과제는 일제 잔재의 청산, 봉건적 잔재의 청산, '완전히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문학 건설'로 요약된다. 이 소설의 진보적 리얼리즘 성취 여부는 진보적 리얼리즘 창작 방법론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15) 서형범, 「염상섭 □□□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115호, 52~88쪽 참조.

16) 김동석, □한국현대소설의 비판적 언술양상□ 소명출판, 2008.

17) □해방□은 '김동리 전집'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거당한 작품이며, □1945년 8·15□은 1980년대 후반 해금작가 해제 조치와 더불어 세상에 알려졌다. □풍□역시 '염상섭 전집'에 누락되어 있으며, 1990년대 후반에야 모

하지만 이 세 소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당대의 현재적 시간을 배경으로 당대의 현안이었던 '공적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 소설이 모두 '공적 영역을 직접 다루'면서 정치적 시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당대의 정치 대표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리 중 하나인 '대중 주권'의 이념에 대해 탐색하면서, 공적 세계와 개인적 세계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 준다. 이는 1950년대 후반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재미의 사적 영역화'[18]와는 아주 다른 지점이다.

□1945년 8·15□이 탐색한 대중 주권은 '실천(행동)'이며, '좌익' 지향이다. 이 소설을 연재하면서[19] 김남천은 '작가의 말'에서 "역사의 커다란 진행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잇"다면서"혼란 가운데서 가장 진실한 그러나 가장 곤란한 길을 것고 잇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20] 김남천이 말하는 '가장 진실한 길'이란 어떤 것이며, '필연적' '역사의 진행'이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김남천은 당대를 '반제 반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노선'으로 정한 남로당의 8월 테제에 입각하여, '민족문학의 건설을 위하여 의거하여야 할 새로운 창작방법'으로서 '진보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주장한 바 있다. '로맨티시즘'은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기본적 창작방법의 계기'[21]라고 말하며,

> 로맨티시즘의 토대가 되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명일과 미래로의

습을 드러내게 된다. 즉 이들 작품들은 '이념의 제약' 등으로 인해 작가로부터 스스로 소거되었거나 소개되지 못했다.

18)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제26호, 2011, 229-261쪽

19) 이 소설이 연재된 □자유신문□은 좌익계열 신문으로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논조의 기사를 주로 실었으며, 그로 인하여 우익계열 청년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습격을 받기도 하였다.

20) □자유신문□, 1945.10.5.

21) 김남천, 「새로운 창작방법에 관하여」, □중앙신문□, 1946.2.13; □김남천 전집 1□, 753~759쪽.

> 부단한 전진,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몽상, 미래를 위한 의지, 가능을 위한 치열한 꿈 등인 것인데……(761쪽)

라고 언급한다. 미래로의 부단한 전진,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몽상, 미래를 위한 의지, 가능을 위한 치열한 꿈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김남천에게 신문연재였다. '혁명의 대중화'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노선'의 기본방향이기도 하였는데, 신문이라는 대중 매체는 '현재성'과 '시사성'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대중 계몽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매체였다. 홍명희는 「1945년 8·15」가 장편소설을 개진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고, 또 신문연재소설이란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소설로서 타락'이라 질타한 바 있다. 홍명희의 발언인 "신문소설이니까 신문소설로서는 재미나게 꾸며나갈 수 있을 테지"라는 비판적 지적은, 김남천이 옹호한 바 저널리즘이 지닌 현재성과 시사성, 일상성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회현상이라는 중요한 일면'[22]을 드러내는 수단일 수 있다. 홍명희가 부정했고 김남천이 옹호하고자 했던 '재미, 현재성과 시사성, 일상성'의 문제가 「1945년 8·15」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지, '대중 유토피아'를 어떤 '대중 주권'에 의해 실현되도록 하였으며, 공통감각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945년 8·15」는 '이틀새 정치단체가 43개나 생기는'(58쪽) 당대의 '공적' 영역을 직접 파고 들어간다. 당대는 '현재성'의 핵심이며, '현실 반영'의 토대로서의 '공적'인 '일상적' 영역이다. 이 소설은 두 개의 축을 각각 날 줄과 씨줄로 하고 있다. 하나는 해외 독립운동가인 박무산을 아버지로 둔 딸 박문경이 애인 김지원과 함께 제약회사 분회결성에 참여하게 되기까지의 여러 갈등과 고민이며, 다른 하나는 친일파 이신국의 딸 이경희와 박문경의 동생 박무경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과정이다. 전자의 서사에는 장사우, 황성묵, 오시형 등 공장 노동자들이 조직의 전위로 활동

22) 「김남천 전집 1」, 277~278쪽 참조.

하고 있으며, 이들은 좌익 이념에 토대해 있다. 김지원, 박문경도 이에 가담하는데, 감옥에서 죽은 지원의 친구 이창현의 여동생 정현도 이에 속한다. 후자의 서사에는 이경희의 남편 김광호와 친일파 최진성, 이신국이 등장하고 있으며, 박문경의 동생 무경도 여기에 해당된다. 문경의 가족은 아버지와 딸, 아들의 대중 유토피아 구상이 각기 다르다. 아버지 박일산은 건준 세력을 대표하며, 딸 박문경은 좌파, 아들 무경은 아버지를 따르는 듯 하다가 매판 친일 세력으로 이동하면서 각기 다른 대중 주권체가 된다.

전자의 대중 유토피아 구상은 좌익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공산당이라는 정치조직 및 각종 노동조합 등을 하부단체로 조직해 놓고 있다. 후자는 주로 친일파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판자본의 성격을 지니며, 대한공화당 및 우익 청년단 등을 정치조직으로 거느리고 있다. 그 외에 건준이 언급되지만 인물로 형상화 되지는 않고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전자는 이념서사 및 연애서사로 형상화 되며, 후자는 이념서사보다 연애서사가 핵심으로 더 부각되어 있다. 전자와 후자의 서사에서 일상성의 개념은 매우 다르다. 전자의 인물들은 대중 주권과 관련한 좌파 조직 활동이 바로 일상인데 반해, 후자에 속하는 인물들의 경우(우파 포함) 조직활동은 일상으로 취급되어 있지 않다. 외제차, 목욕탕 풍경, 집안 살림, 남편과의 대립, 육아, 불륜 등이 일상을 차지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박문경의 주된 일상은 공적 영역에서 벌이는 좌익 활동이다. 매일같이 좌익이념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이 대중 유토피아로서 가능성을 지녔는지 질문하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고민, 갈등하는 것이 문경의 일상이다. 동생 무경과의 논쟁을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의 대중 주권을 확실히 구상하게 된 문경은 한편으로는 김지원의 도움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성찰・자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때로는 소시민성에 빠져 고뇌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로 상징되는 '혈연'으로부터 벗어나 아버지의 '대중 유토피아 구상' '대중 주권'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모든 문제는 조선의 건국에 있지 아버지나 애

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아버지에게 얽매여 주체적 구상을 하지 못하는 무경에게 오히려 "네 자신으로서 건국에 대한 구상을 가지라"고 충고하게 된다.

혈연으로부터, 애인으로부터, 조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객관적 통찰에 이르게 된 문경은 튼튼한 정치적 여성 주체로 거듭난다. 김지원이 '이데가 된 인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신념의 소유자로 형상화 되면서 도식적인 행동양상을 보이는 반면, 문경은 소시민성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면서 성찰 속에서 자각에 이르게 된 '인물이 된 이데'라 할 수 있다. 지식인보다 뛰어난 노동자들의 조직능력에 감탄하고 자신은 변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비판(292쪽)도 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기도 하지만(319쪽), 직공모임에 참석하여 노동자들의 취미가 저속하고 직공들이 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들에게 실망하기도 한다. 이것이 박문경의 일상이다.

노동자에게 실망하는 부분은 박문경의 소시민성을 드러내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더욱 견고히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계기로써 위치지어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문경이 직공 모임에 참석한 후 여직공들의 생활과 그들의 의식정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다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도식성에 함몰되지 않고 정치적 여성 주체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서 오히려 일상성 속에서 구체성을 확보하는 생동감 있는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좌파-우파-친일(매판) 세력이 선/악 이분법에 의해 재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건준 세력은 혈연으로서 좌-우인 문경과 무경에게 일정 시점까지 영향력을 구사함으로써 이분법적 구도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보여 준다. 친일 매판 세력인 이신국과 혈연관계인 이경희와 김광호도 박문경에 의해 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적으로 간주되기는 커녕 박문경은 이경희와 아주 친해서, 그녀의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또 그들의 교양과 취

미, 지성적인 풍모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떤 높은 친근미를 막연히 느끼'(271쪽)기도 한다. 그래서 경희의 여성운동이나 탁아소 운영 등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통속적 재미를 드러내는 문제적인 지점은 무경과 경희의 불륜 부분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옳다'는 전제를 가진 무경은 뚜렷한 신념 없이 주체적인 대중 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학도대를 탈퇴하게 된다. '싫증나서'라고 말하지만(171쪽), 이경희와 관계를 맺은 후 친일 매판 조직인 청년단 조직에 착수함으로써 아버지의 대중 유토피아 구상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우파로 진입한다. 무경은 "8 • 15의 흥분보다 경희로부터 받는 쾌감이 더 크다"(75쪽)고 말함으로써 대중 주권자로서 실격임과 동시에, '아버지로 대표되는 건준' 또는 우파이념이라는 대중 유토피아 선택이 주체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무경과 경희는 문경에게 이분법적 퇴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결코 '적'이 아닌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행위를 통해 좌익 이념 및 그에 토대한 대중 유토피아 구상이라는 역사적 합법칙성 • 역사적 필연성의 영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상징적 사건으로 위치지어 진다. 적이 아니었어도, 혈연관계 및 친구 같은 관계였음에도 우익 지향적 대중 유토피아 구상자들은 스스로 역사적 합법칙성을 탈각하게 된다는 상징성으로 배치되어 있다.

김광호 역시 적이 아니다. 작가는 '영원한 비판자'라는 한 장(제7장)을 김광호에게 할애하고 있어 나름 중요성을 가지고 이 인물을 다루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경희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수족관□에서 동명 인물로 나왔던 김광호는 6년이 지난 해방 직후 6년 정도 나이를 더 먹은 인물로 처리됨으로써 식민지 시기의 인물이 이 시기에 어떻게 대중 주권을 행사하는가를 보여 주려 하였다.[23] □사랑의 수족관□에서 김광호는 당대

23) □사랑의 수족관□과의 연작성 및 연작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한식, 「김남천의 □1945년 8 • 15□연구」, □현대소설연구□15, 229~247쪽 및 손미란, 「전환기로서의 해방기

의 고민과 혼란을 보여주는, '현대' '청년'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1945년 8·15□의 앞 부분에서 김광호는 '영원한 비판자'에 머무르는 허무주의자에 가깝다. 제3자의 입장에서 고고한 비판에나 머무는 인물로 변모해 있다. 경희가 여성운동에 참여하려는 것을 못하게 말리며, 장인 이신국이 정국에 나서는 것도 반대한다. 김광호의 대중 주권은 "나서지 않는 게 건국에 기여한다"(185쪽)는 것이다.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진 장인 이신국으로부터 방적공장 파업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개입하다가 노동자들로부터 반동으로 몰리게 된다.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교양도 있고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몰상식한 것 같지 않아 김광호와 소통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악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기만행위에 불과한 언변만을 구사하여 '기만자'로 몰리고 타도대상이 된다. □1945년 8·15□은 김광호와 같은 '양심적이요, 교양 있는 신사' '노조에 대해 동정적인' 인물이 오히려 노사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269~270쪽)을 명확히 보여 주면서, '제3의 비판자' '허무주의자'들의 "나서지 않는 게 건국에 기여한다"와 같은 '대중 주권 포기'가 역사적 합법칙성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징하게 제시한다. 중간파인 제3의 비판자는 결국 우익 지향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박무경, 이경희, 김광호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함께 대중 유토피아를 구상할 사람들로 전제하지만, 그들의 대중 유토피아 구상은 역사적 합법칙성을 지니지 못하여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도식적이지 않으면서, 선/악 이분법에 토대하지 않으면서, 불륜이라는 소재를 통해 '공통감각'으로서의 재미를 선사하면서 '공적' 문제로 직접 들어가 좌익 이념에 근거한 대중 유토피아 구상을 직접 '실천'해 보임으로써 대중 주권의 힘을 보여 주려 하였다.

이 소설에서 눈여겨보아야 또 하나의 지점은 극좌적 경향에 대한 이 소설의 태도이다.[24] 이 부분은 조선의 단계가 민족해방의 특수단계에 있

문학연구-김남천의 □1945년 8·15□를 중심으로」, 『인문연구□58호, 2010, 190~222쪽 참조.

어 위로부터의 것과 아래로부터의 것이 병존해야 함과 아울러 미군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준비를 하면서 황성묵을 비롯한 좌익 인사들은 극좌적 경향을 비판한다. 극좌적 경향은 우익적 탈선보다 더 위험하다(306쪽)고 보는 것이다.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기 어렵고, 너무 전투적으로 보여서 고쳐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현 단계는 계급투쟁을 전면에 내세울 시기가 아니며, 산업부흥과 강력한 경제건설을 통하여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데 전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이기 때문에 극좌적 경향은 국가건설에도, 향후의 계급투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극좌적 경향은 미군정에 대한 평가에서 두드러지는데, 미군정이 악질 자본가를 옹호하여 노동계급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좌익 지도자들은 미국이 연합국의 군대이며, 그들과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다. 싸워야 할 대상은 오히려 미군정을 혹되게 하는 친일파와 모리배이며, 그들의 군수산업이라는 것이다. 1946년 9월 이전에는 좌익도 미국을 해방자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 소설 역시 당시의 미군정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 주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는 봉건잔재 청산 및 식민잔재 청산이 계급 문제보다 우선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표풍□의 '대중 주권'은 '모색'이다. 모색이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행동하기보다 거리를 유지한 채 한 걸음 떨어져서 관망하고 재단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아직 어떤 것을 결정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실천(행동)'과 구별되며,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서 또 비합적

24) 해방직후에는 진보와 보수의 성향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았다 한다. 좌익인사의 대부분도 지나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혁명의 진도를 늦추는 데 동의했고, 우익 인사의 대부분도 상당한 범위의 사회혁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한다. 김기협, □해방일기 1□, 너머북스, 2011, 8쪽.

이지도 비민주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해방□의 '회피 및 테러'와도 구분된다.

새벽바람이란 뜻의 □표풍□은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여러 방법론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당대 사회와 아울러 그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다. '모색' 주체의 지향은 중간파 노선[25]이다.

> 새벽바람은 매웁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해방 조선의 현실인 듯 싶습니다……새벽 바람은 모질고 어지럽되 개동의 여명은 희망의 빛이요 간밤의 피로와 악몽을 씻어 줄 세 힘의 줄기 외다……무질서하고 참담하더라도 바람이 자고 정상(正常)한 제살이 제자국에 들어앉을 새질서를 찾아가는 고민이고 노력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말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26]

새 질서를 찾는 고민과 노력이라는 작자의 말에서 새 나라 만들기에 대한 염상섭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염상섭이 재현하고자 한 대중 주권의 이념형은 주인공 김혜란과 박병직, 박병직의 좌파 애인 최화순, 소극적 냉소주의자 김관식과 친일파 박종렬, 그리고 식민주

---

25) 1948년 당시의 중간파는 해방직후의 중간파와 의미가 다르다. 해방직후 중간파를 의미하는 것은 건준이었다. 하지만 극좌와 극우의 협공 앞에 곧 좌초된다. 당시 중간파의 약점은 집요하게 투쟁해야 할 강력한 동기가 좌,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는 점이다. 1948년 당시 중간파는 '108인 선언'(1948.4) '303인 선언'(1948.7)으로 압축되며, 정치지형도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위 선언문들의 요지는 단정이 민족 반역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자주적 민주재건, 남북통일국가 수립, 미소 양군 철수 등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 좌우의 이념을 초월한다는 것이었다.
염상섭은 당시 문학단체들이 표방했던 '민족문학'이라는 용어에 이의를 제기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고, '우리문학' '조선문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민족에 한정되는 않는 문학을 주장한다. 염상섭, 「민족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호남문화□ 창간호, 1948.5, 13쪽; 「조선문학 재건에 대한 제의-사회성과 시대성 중시」, □백민□, 1948.5, 15~16쪽 참조.

26) 염상섭, 「작자의 말」, □자유신문□ 1947.12.28자 참조.

의자인 브라운과 베커이다. 김혜란과 박병직은 제3의 가능태를 모색하고 있으며, 김관식 역시 제3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는 하나 냉소적이며 소극적이어서 행동 없는 비판적 인텔리에 머문다.

□표풍□에서 대중 주권이 '모색'되는 방법은 당대의 문화풍경 묘사(정치풍경이 아니라)와 연애서사라는 장치를 통해서이다. 영어, 미국인의 사고방식 및 생활상, 댄스문화, 청년단, 골동품 가게 경요각 및 요정들, 백화점, 무역사업 및 품목 등이 자아내는 여러 풍경을 서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소설 중 이 소설만큼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당시의 사회, 문화적 풍경을 총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작품을 찾아 보기 어렵다.[27]

이 소설의 구성은 연애서사와 이념서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연애서사가 중심[28]이며, 이념은 통속성으로 격하될 위험제거 장치로서 기능[29]할 뿐이다. 연애서사를 중심에 두고 가족이야기를 끌어 들이면서 민족 이야기(분열, 분단, 모색 등)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945년 8 • 15□의 중심이 연애서사보다 이념서사였다면 이 소설에서는 그 비중이 역전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념서사와 연애서사가 길항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념 문제가 애정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이념의 의미가 일상적 차원과 교호하지도 않는다. 이 소설에서 인물들은 이념의 선규정성에 의해 행동한다고 할 수 없다. □1945년 8 • 15□의 김지원과 박문경이 이념의 선규정성에 의해 행동하거나(김지원) 고민하다가 이념의 세계로 진입한다면(박문경), □표풍□의 주인공 김혜란과 박병직은 이념에 의해 선규정 되어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모색'할 뿐이다.

인텔리 여성인 김혜란은

---

27) 서준섭, ' 염상섭의 □표풍□에 나타난 정부 수립 직전의 사회, 문화적 풍경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28호, 2009, 41쪽.

28) 연애담이 중심이라는 것은 서형범, ' 염상섭 □표풍□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115호, 52~88쪽 참조.

29) 염상섭 소설 전반에서 이념과 통속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혜실, '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 □국어국문학□제108호, 1992, 209~225쪽.

> 많은 문제의 초점은 민족을 출발점으로 하느냐 한 계급만을 출발점으로 하느냐에서 갈리는 것 아닌가요?(191쪽)

라면서 민족과 계급으로 재편되는 당대의 정치지형도를 판단할 줄 아는 여성이다. 하지만 혜란의 구체적인 행동은 애정 문제와 관련하여 박병직과 베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외에 별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 박병직과 베커는 어떤 이념을 대변하는 것처럼 제시되고 혜란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바로 모색의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박병직과 베커의 이념이 구체적 '행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병직은 좌익신문사 기자라는 것, 그래서 빨갱이 기자로 불린다는 것 외에 별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박병직의 경우 이념이 애정 갈등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병직은 혜란과 화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화순을 택해 월북을 시도하지만, 월북 감행이 반드시 이념선택은 아니다. 이념에 동조하기보다 '화순을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으로 서술된다. 혜란에게 강력하게 이끌리지 않는 것도 혜란이 가진 이념이나 사상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성적 매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순은 좌익여성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정열적인 여성이다. 병직의 화순 선택은 좌익이라는 이념선택도 있지만, 여성성 선택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혜란의 대 사회관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베커의 유학제의에 대해

> 미국만 갔다 오면 아무나 대의사 되구 대신 된다면 안 갈 사람 없겠죠마는 조선돈이 미국돈과 일 대일로 교환될 때가 오면 그때 가죠.(282쪽)

라고 대답하는 부분이다. 혜란은 병직이 화순에게 점점 더 열중하다가 화순과 떨어질 수 없고 또 화순이만 혼자 보낼 수 없다는 병직의 고백을 들은 후 베커에게 기울어지다가 자신을 객관화 하기 시작한다. 유학비용을 전부 후원하겠다는 베커의 말에 미국과 조선의 관계가 대등해질 때

유학해도 늦지 않다는 주체적 발언을 한다. 베커의 선심을 '떨외교'(弗外交)라 지적하면서, 달러의 힘을 과시하는 베커에게 미국우월주의를 거두라고 일침을 가하며 거절한다. 하지만 이 한 군데에서 뿐이고 다른 곳에서 혜란의 이와 유사한 주체적 발언이 제시된 바는 없다.

혜란에 비해 좌익분자로 나오는 최화순은 혜란보다 이념적 성향 및 애정관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성인물들 간의 대중 주권의 차이를 보여준다. 화순은 이념에 의해 선규정된 인물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좌익 사상을 고수한다. 최화순의 모든 행동은 이념지향적이며, 이념의 의미도 통일된 양상을 보인다. 즉 연애도 좌익이념에 토대해 '과학적 연애'를 주장하며, 실천한다. 화순은 미국(인)에 대해서도 좌익 이념에 입각해 비판한다. 미국이 해방자라고 주장하는 베커에게, 미국의 이권운동자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 중석(重石)은, 홍삼(紅蔘)은 얼마나 실어내 가는지 모르시는 모양이로군? 홍삼은 일제 시대에는 미쓰이(三井)에게 내맡겼던 것이죠? 이번에는 어떤 '미국 미쓰이'가 옵니까?(112쪽)

> 대관절 당신 나라에서 상인이나 이권운동자가 몇 십명 몇백 명이 나와 있나요? 그분들과 모리배와는 격리를 시켜 놓았던가요?(113쪽)

미국이 미쓰이와 다르지 않다고 함으로써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탈자, 식민자라고 비판한다. 베커는 미국이 조선에서 좌우익 협공에 끼여서 견딜 수 없다면서 슬쩍 물러난다. 실제로 화순의 비판은 미국과 일본이 동일한, 식민지배자라고 지적한다. 일본이 구식민 지배자라면 미국은 신식민 지배자이다. 해방자로 자처하려는 미국에게 그 실상을 적확하게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혜란보다는 사회적 식견도 있고, 비판적 논리도 분명하지만, 화순의 좌익 이념에 기반한 대중 유토피아 구상은 더 이상 제시되지 않는다. 월북은 화순의 구상이 남한에서는 더 이상 불

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직의 경우도 행동이 미흡하기는 대동소이하다. 병직의 사회 건설관이 가장 뚜렷하게 제시된 곳은 '제8장 스왈로 회담'과 맨 마지막 장인 '백년손' 장, 그리고 제15장 '변심'장에서이다. 화순에게 점점 몰입해 가는 병직을 보며 혜란은 태도를 결정하라고 요구한다. 병직은 "내가 무슨 정치가니 출처진퇴를 분명히 하란 말요? 난 결국 삼팔선 위에 암자나 하나 짓고 거기 우리 둘이 들어가 책이나 보고 있는 게 소원"이라며 얼버무린다. 이 삼팔선 철학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파의 입장에서 '모색'하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제8장의 '스왈로 회담'에서는

> 베커군에게 할말은 못되지만은 우익에게까지 지지를 못받는 것은 군정의 실패요, 우익끼리까지 분열시킨 것도 미국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 더구나 남조선이 적화할 염려가 있다면 완전히는 당신네의 실패요.(114쪽)

조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베커의 말에는

> 조선 사람 모두가 미국정책에 열복하지 않고 미국세력에 추수하고 아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조선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해야 될 거요!(114쪽)

> 당신같은 분부터 빨갱이와 대다수의 여론의 중류, 중추가 무언지를 분간을 못 하니까 실패란 말요! 우리는 무산독재도 부인하지마는 민족자본의 기반도 부실한 부르주아 독재나 부르주아의 아류를 긁어 모은 일당독재를 거부한다는 것이 본심인데 그게 무에 빨갱이란 말요? 무에 틀리단 말요?(115쪽)

여론도 모르면서 부르주아 독재를 비판하면서 무조건 빨갱이로 모는 미군정의 무지 및 정책적 실패를 지적하고 있으며, 민족자본의 기반이 없

는 부르주아 독재나 무산독재 역시 분명히 거부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즉 당대의 현실에서 그 어느 쪽도 대중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을 긍정하는 편향적 태도도, 반공을 내세우는 맹목적인 태도도 모두 부정한다. 즉 계급 중심의 국가건설도, 외세에 의존한 국가건설도 부정한다. 미국 비판 발언은 좌익과 일정한 공감대가 있으며, 미국이 손잡은 매판자본 및 그들의 반민족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산독재도 거부한다고 함으로써 좌익과 대중 유토피아 구상이 다름을 분명히 한다.

병직의 선택은 제15장에서 '삼팔선 철학'으로 구체화 된다. 삼팔선 철학이란 제3의 중간지대에서 모색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그의 삼팔선 철학은 월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혜란과 결혼하기로 하고 그녀의 집에 찾아 갔을 때 장인 될 김관식과의 대화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조선서 할 일두 이루 많은데 그 먼데까지 가서 무얼 합니까. 공부를 하재두 과학방면은 그렇지 않지마는 저희는 기껏하려면 조선서두 넉넉하죠. 조선학만 가지고도 일생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335쪽)

> 우리 삼팔선이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터질까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 ……
> 그 다음에는 두 세계가 한데 살 방도가 필시 있고야 말 것이니까 그 점을 연구하렵니다.(336쪽)

조선인을 주체로 '조선학'이란 학문을 성립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남북 대립 구도를 해체하겠다는 병직의 발언은 모색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보여 준다.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미소 냉전체제의 틀을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두 세계의 통일을 당위로 그 구체적 방법을 탐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좌우합작과 통일전선에 대한 모색이며, '경계인의 입장'에서 '제3의 새로운 건설관'임을 언표한다. 모색의 결과는 다시 끊임없는 모색의 연속에 다름 아니다. 모색의 주체는 남북 모두에 거리두기를 하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의 '조선인'이다. '객관적인 제3자'로서의 '조선인'은 신식민주의적 구조도 이해하는 주체로서의 조선인이며, 당대의 남과 북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띤다.

이 소설이 연재되기 시작한 1948년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책이 확정된 상태(1947년 11월 15일)였다. 따라서 정치영역에서는 중간파의 입지가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다. 즉 이 소설은 중간파 세력이 사실상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한 이후 쓰여졌다. 이 소설의 '끊임없는 모색'이 어떤 현실적 응전력도 행동으로 형상화 하지 못한 채 추상적 이념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은 당시의 정치지형과 상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병직의 선택이 작중인물들과의 직접적 행동을 통해서보다 맨 마지막에 연설조로, 설교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체성을 얻지 못하고 추상성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 지점이 작품의 가치와 무게를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다. 이는 또한 연애서사와 이념서사의 두 부분 중 연애서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48년 이후 제3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문학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파를 육화하는 다양한 인물형을 형상화 해 낸 □표풍□의 대중 유토피아 구상은 결코 폄하될 수 없다. 또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재미를 비롯한 대중성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1950년대 후반의 소설들과는 분명 그 결을 달리 한다.

단정 수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재되기 시작한 □해방□의 대중 주권의 선택은 '회피 및 테러'로 요약될 수 있다. 회피로 대변되는 인물은 좌익의 하윤철과 신철수이며, 테러로 대변되는 인물은 좌, 우 모두이다. 좌익의 우성근 살해도 테러이며, 범인 추적과정에서의 우익의 하기철 등의

체포도 공권력에 의하지 않고 행해진 테러에 속한다. 하지만 좌익에 대한 우익의 테러는 당연한 것으로, 우익에 대한 좌익의 테러는 역사적 죄로 형상화 된다. 특히 이 소설은 앞의 두 소설에 비해 선/악 이분법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구사한다. 선/악 이분법에 의거하여 우/좌, 우성근 • 이장우/ 하윤철 • 하기철, 이성적/ 감정적, 삶/ 죽음, 사랑/방종, 친일파의 딸/ 좌익여성, 순종여성/ 주체적 여성 등의 이항대립을 설정해 놓고 있다. 우익은 긍정적으로, 좌익은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이 소설은 우성근의 죽음을 둘러싼 범인잡기가 한 축을 담당한다면, 모리배인 신철수를 둘러싼 사기 및 애정행각이 다른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전자의 대중 주권은 '테러'에, 후자의 대중 주권은 회피에 속한다. 테러란 폭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비합법적, 비민주적 방식이다. 또 회피란 '꺼리어서 선뜻 나서지 않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테러건 회피건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이 소설의 재미는 추리기법과 각종 젠더화 방식에서 비롯된다. 우익 청년단체 대한청년회의 회장인 우성근의 피살로부터 시작되는 이 소설은 범인을 체포하기까지의 과정을 추리소설 기법[30]을 동원하여 전개한다. 하지만 이 소설은 좌우의 이념대립 내지 이념의 우위성에 대한 논의보다 좌우익 인물들의 일상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핵심은 연애 및 육욕의 추구이다. 추리서사와 연애서사의 통속적 결합[31]이라 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선/악 이분법에 굳건히 토대하면서 우/좌는 논의가 불필요한 역사적 필연 및 당위의 장으로 그려진다. 우익인 이장우와 우성근은 도덕적인 집단에 속하며,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반면 좌익들은 테러를 일삼거나, 성적 방종으로 타락한 인물들일 뿐이다. 우성근은

30) 김복순, 「제3세계관의 소설적 파탄」, 대중서사학회 신문연재소설팀 발표자료(미발간), 2009, 1쪽 참조.
31) 김복순, 「제3세계관의 소설적 파탄」, 대중서사학회 신문연재소설팀 발표자료(미발간), 2009, 1~3쪽.

죽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를 테러한 하기철은 우익이 굳이 징치하지 않아도 심장마비로 제 풀에 죽어버릴 사람이다. '우연' '운명'으로 해석[32]될 수 없는, 일종의 역사적 필연으로 이 소설은 개념규정한다.

좌익 이론가로 나오는 하윤철의 좌익 선택도 '대중 주권'자로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소설에는 이념 논쟁이 단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는데, 결말부분에서 짧게 제시되는 것이 전부이다.

"난 자네가 그렇게 극우 될 줄은 몰랐어. 그 부패하고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자본주의 세력의 지지자가 될 줄은 몰랐어."

"그럼 좌익이란 그와 반대란 말인가? 신선하고 자유스럽고 진보적이고……?"

……

"삼팔선이란 말일세……'두 개의 세계'! 자네 이 '두 개의 세계'란 무슨 뜻인지 아는가?"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본주의 세계와 쏘련을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 세계란 말인가?"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세계'의 싸움에 뛰어 드는 것 뿐이야. 그 어느 '한 개의 세계'에 가담하여 다른 '한 개의 세계'와 싸우는 것이야."

"이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지양한 '제3 세계'의 출현을 상상할 수는 없는가?"

"……가장 현실적이요 구체적인 방법은 그 어느 '한 개의 세계'가 다른 '한 개의 세계'를 극복하는 길밖에 없어……"

……

"그렇다면 '두 개의 세계' 중 자본주의를 택해야 한 이유는 어디 있는

32) 박은태와 김동석은 이를 '우연'의 계속에 의한 '운명'으로 해석한다. 박은태, 「김동리의 『해방』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06, 277~296쪽; 김동석, 『한국현대소설의 비판적 언술 양상』, 소명출판, 2008, 95~125쪽.

가?”

“나는 자본주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택한 것이네.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 개성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있어. ……또 다수 인민을 표준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또한 사회주의에도 통하는 것일세……우리가 취하는 민주주의 표준으로 본다면 미국을 60퍼센트라면 소련은 그 절반 30퍼센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네. ……내가 극우를 취하게 된 것은……이 단계에 있어 우리가 아직 민족국가를 건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때문이야. ……소련은 부동항을 가져야 한다는 절대적인 요청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정치적 현실에 있는 소련과 악수하고는 독립된 민족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말일세……그를 견제하는 정치적 방법으로는 대척적인 또 ‘하나의 세계’와 악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세.”

……

“……나는 이 쪽도 저 쪽도 아니야.”

“그럼 자네 인민당에는 왜 관계했어? 인민당은 완전히 공산당의 한 개 외곽 정당이 아닌가?”

“인간관계야. 몽양선생도 알지만 또 그 밑에 내 친한 친구가 있었어…… 이렇게 맘 속에 있는대로 해본 것은 해방 후 첨이야……”(387~391쪽)

제11장 ‘십자가의 논리’ 편으로서, 이장우와 하윤철의 대화 부분이다. 하윤철은 몽양을 좌익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좌익이 된 것은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마치 비밀을 고백하듯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좌익이념은 이렇게 별 이유 아닌 이유로 선택되는 것임을 확인시킨다. 즉 좌익 이념의 역사적 필연성을 일거에 몰아낸다. 하지만 이장우의 논리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을 선택한 것은 ‘소련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다. 소련의 부동항 획득 정책을 피하기 위해 그 반대편인 미국을 택한다는 논리이다. 미국 또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념이 옳아서가 아니라, 즉 미국선택이 역사적 필연성이어서가 아니라, 소련을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부정의

반정립 형식이다. 긍정의 형식이 정당성을 근거로 확고하게 주장하는 방식이라면, 부정의 반정립은 아닌 것을 부정함으로써 차선 또는 차차선을 택하는 방식이다. 즉 이장우의 발언은 민주주의도 실은 정당성이 확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 언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김동리가 주장하는 '제3세계'를 지향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소설은 '한 개의 세계'가 다른 '한 개의 세계'를 극복하는 길을 말하고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제3세계의 소설적 파탄'[33]을 확인시킨다.

한편 이 소설의 다른 한 축인 신철수의 '회피' 속에서 의미화 되는 것은 물욕과 육욕에 기반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다. 이는 시비 자체에 대한 판단 무력화를 조장한다. 신철수에게 '새로운 나라 만들기'라는 대중 유토피아는 이미 지나간(already) 아젠다에 불과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대중 유토피아 구상'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밖에 없다. 「1945년 8·15」에서 추구하였던, '근대적 계몽'에 기반한 '공적'인 추구는 신철수에 의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개인적 욕망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는 시비 자체를 아예 비열하고 저속하고 야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신철수의 이러한 대중 주권은 단정 수립 후라는 정치지형도를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8·15일」「표풍」「해방」은 실천→모색→회피 및 테러라는 대중 주권의 변모과정을 드러내지만, 아직 '공적 영역'에 대한 '공통감각으로서의 재미'를 전제로 하는 재현 방법을 보여준다. 1950년대의 양상과 달리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작가들도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으며, 독자 또한 '공적 영역'으로부터 '재미'를 추출해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천을 벗어나는 순간, 실천에서 멀어지는 순간, 대중 주권은 모색 단계에 그친다거나 회피 또는 테러의 영역으로 전개되었다. 세 소설은 한국소설사 전개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

---

33) 김복순, 「제3세계관의 소설적 파탄」, 대중서사학회 신문연재소설팀 발표자료(미발간), 2009, 1~3쪽 참조.

2.2. 여성 주체 양상의 변모와 관능성, 폭력성, 야만성의 강화

세 소설에서 재미와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성 주체 양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식민지 시기 소설들에는 이렇다 할 여성주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해방 후의 소설들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정치적 주체로 초점화 하면서, 여성을 '국민 주체'로, '대중 주체'로 부각시킨다. 이기영의 □고향□등 프로소설에 다소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여성 주체는 단독적으로 독립적인 주체는 아니었다. 남성 주체에 부속되어 있는 인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였다. 여성 주체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존재하였으나, 서사 재현에서 그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해방 직후 최정희의 「풍류 잽히는 마을」에서 여성주체, 그것도 정치적 여성주체가 제시된 적은 있으나[34] 1946년 9월에 발표된 것이었고, 조직이나 단체와 무관한 독자적인 여성주체였다. 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형상화 되기보다 1인칭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었다.

이보다 더 일찍 김남천은 □1945년 8·15□에서 올곳이 일어서는 정치적 여성 주체를 보여 준다. 프로소설에서처럼 남성 주체의 보조자에 머물지도 않으며 도식적이지도 않은, 내면까지 아울러 드러내는 독자적인 여성 주체가 탄생하였다. □1945년 8·15□의 주인공 박문경은 '학병 반대 격문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김지원의 애인으로서, 전반부에서부터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갈등하다가 스스로 성찰·자각하면서 주체로 일어서는 여성 형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와 동생 박무경, 김지원 사이에서 박문경은 어떤 것이 '역사의 진행'에 올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고뇌한다.

박문경의 흔들림 중 하나는 김지원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처음에는 김지원을 지도자, 선생님으로 인식하면서 '이데로 된 인물' 김지원의 애인에 그쳤다. 그러다가 김지원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 박무경의 지적에 의해 촉발된 종로 시위 및 파업 사태에 대한 항의 및 지적

34) 김복순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반미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40호, 2009, 308~341쪽.

에 대해 고뇌한다. 이러한 일련의 고뇌를 통해 박문경은 제약회사 분회 결성에 참여하면서 '실천' '행동'하는 여성으로 거듭난다. 박문경은 단순히 좌익운동 주체라기보다 '국민-여성' 주체라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 프로소설에서의 여성 주체와도 다르다.

> 나는 8월 15일 이전에도 조선의 금일과 장래를 위하여 아무런 계획도 신념도 행동도 가지지 못하였고 또 15일 이후에도 그것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와 행동을 가지지 못하였다. 내가 과연 조선 삼천만의 한 사람으로 불리워질 자격이 있는 것일까. 조선을 떠메고 나가야 할 사백만 조선 젊은이로서 그 명예와 의무와 책무를 정당히 자각하였다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118쪽)

여기서의 박문경은 '국민-여성-청년' 주체로서, 좌익 이념에 토대할 때 그 주체성이 비로소 확보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주체로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박문경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자신을 비판한다. 특히 전반부에 내면서술로 이루어진 정황 소개는 고뇌하는 박문경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후반부의 박문경의 일기로 제시되는 내성록에서는 마침내 전위로 등장하는데, 이는 박문경이 '인물로 된 이데'가 되는 과정을 엿보인다. 내면서술 부분에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질의 응답들, 느낌과 추측 등은 성장·발전해 가는 문경의 섬세한 내면을 잘 드러낸다. 따라서 이 소설은 문경의 성장서사이다. 박문경의 현실인식은 박무경, 김지원 등 작중인물들과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박문경이 정치적 여성주체로 거듭나는 이러한 변화과정은 이 소설의 재미를 보여 주는 핵심 부분 중 하나이다. 고민하는 박문경은 '소시민적 세계관과 민족적 열등의식으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기보다 정치적 여성 주체를 제대로 형상화 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현실을 부정한 관념적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기보다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작가의 확신을 드러내는 낙관적 객관주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김지원의 일방적 교시로 인해 성장하였다면, 바람직한 정치적 여성 주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식민지 시기 프로문학에서의 여성 형상은 남성들의 지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데 그쳤으며, 남성의 보조자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박문경은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조직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약회사 분회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남성의 보조자 역할을 스스로 벗어난다. 조직에서는 원래 부녀운동을 맡기려 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제약회사 분회결성에 참여함으로써 독자적인 정치적 여성 주체가 된다.

박문경의 주체양상은 김지원을 비판하는 지점에 이르러 최고조에 도달한다. 그간 지도자, 선생님으로 인식했던 김지원이 이제는 단점 있는 남자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각성된 문경에게 김지원의 '혼자 결정하는 버릇'은 가부장적 태도로 인식되며, 일방적으로 부녀동맹을 권하는 자리에서는 '퉁명스럽고 사무적인 질문처럼 느껴진다'(294쪽)고 토로한다. 성장한 문경에게 김지원의 일방성, 가부장성이 '발견'되면서, 김지원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닌 '동지'가 된다. 이때 김지원이 문경을 비로소 '동무'로 호칭(280쪽)하게 되는 것은 문경의 성장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증빙이다.

이 소설에서는 문경 뿐만 아니라 이창현의 누이 정현과 어머니도 다른 소설과 달리 주체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문경과 정현을 비교하면서 서술자는 문경이 이지적이고 냉철한데 반해, 정현은 독서량이 더 많고 이론적이며, 열정적이고 충격적이라 언급한다. 즉 정현은 김지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이데인 인물'로서 고민 갈등하면서 변모하기보다 이념에 의해 선규정되어 행동한다.

문경의 어머니 또한 예사 어머니와 다르다. 굳건한 의지와 생활력, 자존심과 판단력까지 갖춘 인물로 소개된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아버지와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바 있는 최진성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도움 받고자 하나, 이미 친일파로 돌아선 최진성은 동티날까봐 거절한다. 그런 가운데 자식들을 혼자 훌륭히 길러낸 어머니이다. 해방이 되자 두려움을 느

낀 최진성은 문경의 어머니에게 이런 저런 선물을 포함하여 거금을 건네지만, 어머니는 올곳이 거절함으로써 남편의 '대중 주권' 및 민족적 자존심을 지킨다. 서술자는 문경으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한 어머니'(49쪽)라고 칭송해 마지 않는다. 딸의 세대에 의해 긍정되는, 한국 소설사에서 매우 드문 어머니를 제시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풍」에 이르면 여성들은 정치적 주체의 역할을 부여 받지 못한 채 배제된다. 연애의 주체로나 초점화 되다가 「해방」에 이르면 연애의 주체마저 내주고 물러나게 된다. 「표풍」의 혜란은 병직의 애인이지만 병직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감이 있다. 병직은 사회주의자 최화순의 '과학적 연애'에 끌려 월북까지 시도한다. 물론 병직의 월북 시도가 최화순에 대한 욕정의 끌림 때문만은 아니다. 병직은 혜란과 화순을 각각 우파/좌파로 기호화 하고 있다. 화순의 선택은 단순한 욕정이기보다 이념과 사랑이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혜란은 초점인물로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지만 「1945년 8·15」에서처럼 정치적 주체는 아니며, 그보다는 연애의 주체로 부각되어 있다. 혜란-병직, 혜란-베커의 관계는 삼각구도를 형성하면서 혜란을 연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한다. 병직이 화순에게 이끌릴 수록 혜란은 베커에게 이끌리는데, 이 때 혜란의 정치적 이념은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나 개입될 뿐이다. 빨갱이 신문사의 기자로서 빨갱이의 애인이어서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실제로 혜란은 그후 전혀 빨갱이답지 않고 오히려 우파적 행동을 거듭한다. 그 정점에 베커가 있다.

「표풍」에서는 최화순이 오히려 정치적 주체에 가깝다. 혜란이 미온적으로 병직에 다가서는데 비해 화순은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연애와 더불어 사상적 동지로서 기능한다. 화순의 연애론은 사회주의의 연애론인 '과학적 연애'이다. 이에 대해 서술자는 인용부호로 강조처리 함으로써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음을 노출시킨다. 과학적 연애란 "자기 본위이면서도 자기를 연애나 남자의 굴레 밖에 자유롭게 놓아두는 동시에 저편도 구속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냉담한 것도 아니나 집착도 안 한다." 사회주의

연애론에 부합하게 화순은 자신의 감정을 병직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육체적 접촉도 적극적으로 행한다. 병직 역시 화순의 그러한 적극성이 싫지 않은 것으로 그려져 있다. 병직은 오히려 혜란이 자기 정열에 피동적인 것 같아 불만을 느낀다(85쪽). 화순의 월북 제의에 종국적으로는 그녀만 혼자 보낼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하는데, 서술자는 이북 가보고 싶다는 것이 요새 청년들의 '공통 감정'(85쪽)[35]이라 말하면서 당대의 유행풍조로 의미화 한다. 즉 '대중 주권'의 '선택'이라기보다 일종의 유행풍조로 설명한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표풍□의 여성 주체는 □1945년 8·15□에 비해 훌쩍 사적 영역으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순을 부정적으로 형상화 하는 지점에서 연애의 주체로서의 여성 주체마저 부정적으로 고정시킨다. 병직은 화순에 대해

> "화순의 취할 점은 감연히 인습을 타파하고 봉건적 가족주의에 반항하고 나온데 있다 할까?(190쪽)

라면서 정치적 주체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혜란을 보면서는

> 화순이 같으면 어머니께 그렇게는 못 할 거야……화순이는 아무래도 가정부인은 못 될 거라, 아내 노릇은 할지 몰라도 며느리 노릇은 못할 거라--이런 생각을……또 사실 안온하고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하자면 화순이는 문제도 아니요 혜란이보다 더 나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다.(189~190쪽)

화순과 혜란을 비교한다.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하지만, 정치적 주체와

35) 이 공통감정은 당대의 '공통감각'에 맞닿아 있다.

가정적 주체를 분리하면서, 가정적 주체가 우선적 가치체계임도 분명히 드러낸다. 화순은 가정적 주체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의미화 된다. 좌파적 이념에 부분적으로 동조하는 병직마저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처럼 남녀 이분법적 성 역할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화순의 성격 및 형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① 이맛살이 좁은 듯하고 턱이 빨라서 광대뼈가 좀 나온 듯한 포동포동한 혈색 좋은 얼굴에서 샛별같은 두 눈이 대룩하고 반짝하면 남의 오장 속까지 들여다 보는 듯한 화순이다. 게다가 신문기자 노릇을 다섯해나 해먹었다. 왼편 입귀를 빼뚜룸히 쳐뜨리고 콧등에 선웃음이 지어오르는 듯하며……화순이는 이 세상을 그 대룩거리는 눈으로 흘겨보고 코웃음을 치는 것이다.(49쪽)

②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화순이의 표정을 눈여겨본 사람은 이 여자가 하룻밤 새에 이렇게도 변하였을까 하고 놀랄 것이나(82쪽)

아무튼 종을 잡을 수 없는 성미야 노도광란 같은가 하면 금시로 잔잔히 흐르는 금파은파 같고……(84쪽)

③ 절름발이나 곰배팔이 조카며느리를 볼까 보아 물을 떠오너라고 시중을 들리는 것인지 대체는 부전부전한 객설스런 마님이라고 생각하였다. 화순이는 우선 이 마님의 테스트에 합격이 안 된 것을 알아차렸고 합격이 되려는 생각도 없으나 합격이 된 혜란이가 가엾어도 보였다.(198쪽)

④ 농촌의 여자까지라두 비녀를 빼버리고 핀으로 머리를 쓱쓱 빗어버리게까지 돼야 독립요 신생활요 신문화요……하고 떠들 거 아닌가베!(199쪽)

①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화순을 서술자의 눈으로 그린 것이다. 화순이

무신경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외모가 주는 모난 특징과 함께 남자를 휘두르는 성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②는 병직이 평가하는 화순의 성격이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충동적이지만, 이러한 면들이 매력이기도 하다고 평한다. ③과 ④는 병직을 병문안 갔을 때 병직의 모친과 대화를 나누면서 화순이 주위의 시선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다.

서술자는 화순을 여러 가지로 예각화 하면서, 혜란처럼 순결하고 병직의 '난봉'을 참아내는 인종적인 순종형 여인상을 전통적인 현모양처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한다. 반면 지적이며 행동적인 좌익 여성은 감정적이며 즉흥적이고, 사사건건 관습과 규범에 저항하는 부정적 인물로 인식되게 처리한다. 화순의 이념 및 '대중 주권'에 공감하게 하기보다 거리감을 두게 만든다. 다소 즉자적으로 반항하는 감정적인 여성임을 은연중 강조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중 유토피아 구상'에 적절치 않은 여성이라는 인상을 심어 준다. 급기야 병직의 친척들로부터 '불량 소년단의 두목 같다'(202쪽)는 혐오스런 말까지 듣게 된다.

병직이 화순에게 기울었다가 혜란에게 돌아오는 이 소설의 결말이란 젠더적 입장에서 보면 「1945년 8·15」와의 거리감을 확인시킨다. 「1945년 8·15」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형상화 하고 있으며, 정치적 주체와 가정적 주체를 분리하지 않는다. 또 성 역할 이분법에 종속되어 있지도 않다. 성 역할 이분법은 정치적 영역, 가정적 영역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948년의 「표풍」에 이르면 정치적 여성 주체는 배제되거나 소거되고, 가정적 주체로 사적 영역에 위치된다. 이와 아울러 화순에 대한 이 소설의 평가는 '반공주의 가부장제' 시선을 확인시킨다. 즉 좌파 여성은 정치적 주체로는 적당할지 모르나 가정적으로는 부적절하기 짝이 없으며, 좌파 여성과의 결혼은 안온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를 담론화 한다.[36]

그래도 「표풍」에서는 화순을 정치적 주체로는 인정하였다. 하지만 「해

36) 반공주의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구보학보』 제18집, 2008, 204~233쪽 참조.

방□에 이르면 여성에 대한 배치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여기서는 여성이 연애의 주체로도 형상화되지 않으며, 남성들의 연애 '대상'에 불과하거나 강간의 대상, 또는 성적 방종을 일삼는 성적 타락자로 처리된다. 통속성을 드러내는 이 소설의 여러 부분 중[37] 가장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의 형상화 부분이다.

주인공 이장우와 연애 감정을 나누는 인물들은 모두 통속적으로 묘사된다. 하미경과 심양애, 해방주보 사장 오금례, 그의 딸 윤정혜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이장우가 처음으로 결혼한 여자인 하나꼬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속적으로 묘사된다. 특히 좌익 여성들은 하나같이 성적 방종으로 치닫는 여성들에 불과하다. 이장우도 평소에는 근엄하게 묘사되다가 여성과 만나게 되거나 연결될 때는 갑자기 성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남자로 돌변한다. 또 신철수는 여성을 농락하는 파렴치한으로 등장한다. 여러 쌍의 삼각관계, 선정적인 장면묘사 및 심리묘사 등은 여성을 정치적 주체나 연애의 주체로부터 멀찌감치 분리시키면서 오직 성적 대상으로 형상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때 여성들은 관능성, 선정성 속에서 묘사된다. 이장우의 옛 애인인 하미경은 '달걀같이 희고 백합같이 아름다운 여자'이고, '정조가 강한 여자'(51쪽)이다. 심양애는 '건실한 판단력과 관대한 지성'이 빛나는 여자(112쪽)이다. 이장우는 우파의 지도자로서 우성근의 피살자를 찾아내야 하는 임무를 맡았음에도, 여성들만 보면 낭만적 수준을 넘어 성적인 인간으로 돌변한다. 인물묘사의 통일성이 깨지는 부분이다. 이장우는 양애를 보자 향기와 함께 갑자기 정욕을 느끼며(하321~322쪽), 미경을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 괴롭다면서(상310쪽), 보고 싶다고

37) 박헌호, 「김동리의 해방에 나타난 이념과 통속성의 관계」,□현대소설연구□17집, 202, 252~270쪽; 박은태, 「김동리의 □해방□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06, 277~296쪽. 전자에서는 주로 장편양식과의 관계에서 통속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인물형상화 전반의 통속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 여성의 정치적 주체의 배제, 연애 주체로서의 소거, 서사의 전반적인 젠더화와 관련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신음한다(상312쪽).

> 양애가 다녀 나간뒤 갑자기 방안에 향기가 찬 듯이 이장우에게는 느껴졌다. 그는 갑자기 새로운 힘이 솟아오름을 깨달았다.(상293~294쪽)

> 학교 앞까지 왔다. ……교문 쪽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으나 그것도 사람 같지는 않았다. 순간 그의 머리 속에는 야비한 정욕이 왈칵 치밀었다. 거기서 그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리라는……그만치 캄캄한 어둠이 그에게 갑자기 정욕을 충격시켰다. 숨이 차도록 가슴이 두군거렸다.(상304쪽)

> 그는 이 '미경이'란 소리에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 당황해 하는 꼴을 하윤철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상310쪽)

> 이장우는 몹시 고단하고 또 괴로웠다. 속히 혼자 되었으면, 하고……그리고 한시 바삐 미경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그러나, 지금 자기는 과연 그들을 찾아가고 미경을 만나보고 할 수 있을까……그런 생각을 하자 무언지 자꾸 노여웁고 어색해서 어떻다고 잘라서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리에 누었으나 웬 일인지 사뭇 가슴이 울렁거리고 잠이 들지 않았다. 아무리 눈을 감고 잠이 들래야 앞에 아물거리는……(상312쪽)

이장우는 도덕적으로 이념적으로 건실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여성과 관련되기만 하면 갑자기 감정적 인간으로 돌변하며, 갑자기 정욕을 '충격'시킨다. 얼마나 강했으면 충격시킨다고 표현하였는지, 이장우의 정욕의 강도를 느낄 수 있다. 더구나 양애는 애인도 아니었다. 또 하윤철과 대화를 나누는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미경이란 단어가 나오자 더 이상 하윤철과의 대화를 진행시키지 못한다. 과거의 감정이 살아나 이성적 대화를 방

해할 뿐더러 그만 중지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이장우는 여성과 관계되기만 하면 갑자기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남성'으로 돌변한다. 인물 형상화에 걸맞지 않게, 필요 이상으로 선정성, 관능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신철수는 하미경에 대한 육욕을 참지 못하여 자신에게 몸을 바치지 않으면 동생을 고발할 것이라 협박한다. 악한으로 그려지는 신철수의 겁탈에 이르는 과정은 폭력성과 야만성을 드러낸다. 이는 □1945년 8·15□□표풍□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다.

신철수는 박선주를 비롯한 좌익여성들의 '과학적 연애'관을 역으로 이용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기에 바쁘다. 박선주의 연애 및 사랑에 관란 이념이란

> 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혁명을 위한 정치적 활동은 가장 심신의 소모를 요하는 강력한 활동이요, 쾌락 가운데서는 남녀 관계의 성적 쾌락이 으뜸이라, 자기들과 같이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혁명운동에 심신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적 쾌락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노릇이라, 박선주는 주장하는 것이다.(88쪽)

라고 해석되어 있다. '근로와 쾌락의 두 가지 의무와 권리'를 통속적으로 해석하면서, 특히 쾌락 중에서도 '성적 쾌락'에 강조를 두어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이 말하는 정치적 주체, 연애의 주체로서의 '쾌락'이 통속적으로 해석되어, 좌익 여성들이란 '육체적 쾌락을 서슴치 않는'(89쪽) 여성들로 선/악 이분법 하에서 개념규정 된다. 또 이를 좌익 전체의 특징으로 매도한다. 좌익에 대한 비판이 통속적으로 왜곡, 비판되고 있다.

좌익 비판이 통속화 되는 것은 이미 단정 수립으로 좌익에 대한 우익의 승리, 이데올로기의 승리를 쟁취한 후여서 더 이상 좌익비판을 정당하게 행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좌익비판이 필요 없어졌을 때 좌익 사상은 통속화와 함께 젠더화 되며, 그 핵심에 여성의 성적 대상화

가 배치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좌익은 「1945년 8・15」과 다르게 아무런 '실천(행동)' 없이 제시된다. 그저 성적 문란으로 그려지거나(여성들) '테러 집단' 또는 '개인적 관계' 때문에 선택한 이념(하윤철의 경우)일 뿐이다. 이는 우익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물들로 구성되고, 지적이며 도덕적 순결성을 지닌 인물들로 그려지는 것과 매우 다르다. 즉 「해방」이 우익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중심에,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통한 통속화, 남성의 폭력성 및 야만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1945년 8・15」에서 「표풍」을 지나 「해방」에 올수록 여성의 주체성은 소거되며, 남성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은 여성의 비주체성 내지 남성들의 육체적 욕망을 기호화 하는 도구가 된다. 이 과정에서 선정성은 두드러지게 강화된다.

2.3. 호모아메리카나의 탄생과 한미관계의 젠더적 구조

호모아메리카나란 영어구사능력 등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친연성을 보이면서 신분 상승 및 부의 축적을 도모하는 인물들을 뜻한다. 기회주의적 인물로 형상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회주의적 인물은 아니지만 해방 직후의 신풍속도를 객관적으로 형상화 하면서 당대의 새로운 삶의 조건으로서 소개되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영어는 일종의 '자본'으로서, 영어구사능력은 호모아메리카나의 물질적 토대가 된다. 즉 영어구사능력은 새로운 삶을 영위케 하는 일종의 무기인 셈이다. 이들은 일정하게 미국에 대한 환상을 드러낸다. 미군정의 실시와 함께 신식민지적 질서가 구축되고 냉전체제가 정착되면서, 미국・소련 등의 외세가 대중 유토피아 구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외세에 대한 시선 및 태도는 민족문학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이란 외세가 대중 유토피아 구상 및 대중 주권의 선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즉 민족국가 건설 및 민주주의 발전에 도모했는지, 아니면 분단세력을 확대재생산하여 통일국가 수립을 방해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 또는 미국과의 관련은 채만식의 「미스터 방」 「논이야기」, 염상섭의 「양과자갑」 「삼팔선」, 김영수의 「혈맥」 등에서도 제시되지만 □표풍□에서처럼 서사 전반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표풍□에는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주인공 김혜란 뿐 아니라 그의 오빠 태환, 그리고 경요각 주인 이진석과 일제말 혜란의 영어선생이었던 장만춘 등이다. 장만춘은 전직 교사로서 해방후에는 영어를 무기로 형사 끄나풀, 고물상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인물이다. 영어를 이용하여 한몫 잡아보려다가 겨우 통역으로 잔돈푼이나 만지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민족의 미래와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물질적 욕망만을 꿈꾸는 인물로서, 서술자는 혜란을 통해 그가 "해방을 건성한 탓인지" "성격이나 자기 자신의 잘못인지" "영어를 하거니 하고 막연히 섣불리 나선 거기에 실수가 있었든지"(17쪽)라고 언급함으로써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해방 후에는 두 종류의 기회주의자의 전형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지주-기회주의자'이고[38] 다른 하나는 여기서와 같은 '호모아케리카나-기회주의자'이다. 장만춘, 이진석은 후자이며, 박병렬은 전자와 후자가 결합된 형태이다.

장만춘에 반해 경요각의 주인 이진석은 일제 때부터 미국에 살면서 이미 미국화된 인물이다. 미군정 치하에서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경요각을 운영하면서 문화적으로 한미관계를 만들고 그를 통해 물질적 부를 성취하려는 인물이다. 경요각은 골동품 가게로서 이진석의 무역업은 표면적으로는 '문화 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 빌붙어 잇속을 챙기지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혜란의 오빠 태환 역시 영어를 자본으로 박병직의 아버지 박병렬[39]의 비서관이 되어 미군정과의

38) 김복순,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반미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40집, 2009, 308~341쪽 참조

39) 와다 도모미에 의하면 박병렬은 일제 시대 화신백화점의 사장 박흥수가 모델이라고 한다. 「김남천의 취재원에 관한 일 고찰」, □관악어문연구□23집, 1998, 214~240쪽.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호모아메리카나들이 모두 동일한 의미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장만춘과 이진석이 민족적 이해관계에 무관하게 오직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부를 욕망하고 있다면, 태환은 정치적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태환은 박종렬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면서 우익 청년단을 이끌고 있으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파의 정치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호모아메리카나의 형상이 □효풍□에서처럼 다양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반해 혜란과 아버지 김관식은 영어를 구사할 줄 알지만 영어를 자본으로 호모아메리카나가 되지 않고 비판적으로 당대를 관찰하는 인물이다. 김관식은 일제 때 미국유학으로 영문학을 전공한 지식인이다. 나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음에도 '서재'에서 비판적 시선을 유지한 채 진지한 태도를 잃지 않는 인물이다. 당시를 '먼지뿐'인 '쓰레기통'으로 비유하는 김관식은 선거에 출마하라는 박병렬의 권유에 "아직 UN단도 오기 전에 입후보를 하란 말"이냐며 거절한다.

혜란은 김관식과는 좀 다르다. 일제 때 여자전문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후 모교의 선생으로 재직했던 혜란은 영어구사능력 때문에 이진석에게 발탁되어 그의 무역업에 일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기회주의적 인간으로 전락하거나 모리배로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인으로 등장하는 브라운과 베커는 이 소설에서 호모아메리카나를 양성하고 확대재생산하는 '구조'로 등장한다. 두 미국인은 구식민지와 신식민지와의 관련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40] 염상섭이 미국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브라운은 아버지가 일제 때부터 한국에 건너와 금광사업(운산금광)을 하면서 십년 넘게 살았으나, 일제 치하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자 총독부에 밀려 탄광을 삼정(三井)에 팔아넘기고 오일컴패니 지점까지 팔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브

40) 김재용, 「8 • 15 이후 염삼성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효풍□, 실천문학사, 1998, 340~366쪽.

라운의 어머니도 조그만 무역상을 하고 있었으나 전쟁 전에 쫓겨 갔다. 한국에서 자라 모국어처럼 조선말을 구사하는 브라운은[41] 미군정이 시작되자 아버지 대신 새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일본 세력을 걷어차고 이 땅을 다시 밟은 것이 보복이나 한 듯이 통쾌하고 뽐내보고 싶은 충동을 깨닫는" 브라운에게 한국은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즉 수탈의 토대이다. 그(미국인)는 일본과의 자본주의 시장 쟁탈전에서 승리자이다. 겉으로는 여러분의 건국사업에 이바지 하고 싶다지만(35쪽) 브라운의 욕망은 자본주의 시장을 목표로 하는 '비지니스맨'일 뿐이다.

이에 반해 베커는 오키나와에서 통역 겸 선전공작대로 종군했던 인물로서, 담당업무는 실업 방면의 사무이다. 취미로 조선민속을 연구하며 틈틈이 재료를 수집하는, 동양적 취미를 지닌 인물로서, 백자동병풍(百子童屛風)과 남사당패 인형은 그의 동양적 취미를 충족시키는 '대상'이다. 경요각은 그의 단골 가게이다. 조선문제를 연구하는 구락부를 조직하자는 제안을 할 정도로 브라운과 달리 '문화연구' 에 집중한다. 베커의 동양 취미의 한편에 혜란이 위치한다. 베커는 단아해 보이는 인상, 인텔리 청년(11쪽), 교양있는 청년, 친절한 사람(13쪽), 권력을 가진 미국청년(169쪽) 등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을 보여준다. 서술자가 그리는 베커의 모습은 동양적 취미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서사 내내 긍정적 인물로 인지되도록 처리해 놓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브라운은 아내를 내세워 혜란의 '빨갱이' 사실을 지적하고 경계한다. 혜란은 L여자전문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을 때 브라운의 부인한테 일년 동안 회화와 영작문을 배운 바 있다. 상품시장을 개척하려는 브라운에게 빨갱이 세상이 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할 사항이다.

베커는 동양적 취미의 연장에서 혜란을 흠모하면서 그녀에게 접근한다. 혜란에게 지참금 백만원의 신부를 만들겠다고 호언하기도 하고 혜란

41) 브라운은 조선 속담까지 능숙하고도 적절하게 구사할 정도로 조선말에 능통하다. "이 영감 곯은 달걀 지고 성 밑에 못 갈 양반이로군…" 등(37쪽).

에게 한복을 입고 나오라고 권유해 보기도 한다. 베커의 동양적 취미는 거의 몽환적 경지에까지 도달해 있다.

> 곱게 꾸민 조선여자를 보면 '동양의 선녀'를 생각하면서 몽환적 기분에 감겨들어 가는 이 이국의 청년, 조선의 하늘과 자연을 예찬하고 조선은 서서(西瑞)와 같은 평화의 나라가 되어 동서양의 두 문화가 여기에 아담스럽게 결정될 날이 있을 것을 믿는다는 이 청년을 어디까지든지 문화인이요 신사로 믿는 것이다.(272쪽)

혜란은 베커와 함께 산책을 나간다.

> ……서양의 어느 소설에서 보던 귀족의 따님이 된 듯 싶은 달뜬 기분이 들먹거리는 가슴속에 은은히 피어 올았다. 옆에서 가다가다 미칠 듯 말 듯하게 소로를 끼쳐오는 싱글한 향기는 이 남자가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메리카 냄새라기보다고 남자의-이성의 냄새같이 맡아져서 전신으로 느글느글한 감촉을 받았다. ……혜란이는 무심코 눈길이 가다가 외면을 하면서도 그 냄새가 다시 맡아보고 싶고 그 손길로 다시 눈길이 가존 하였다.(271쪽)

여기서 베커는 미국인으로서 '남성화'되어 있다. 아메리카의 냄새는 성적으로 은유화 되어 남성의 냄새로 인식된다. 혜란/베커는 동양/ 서양, 한국/ 아메리카, 여성/ 남성의 유비관계를 형성하면서 피식민지/신식민지 관계를 유포한다. 즉 한미관계의 젠더적 구조가 드러나는 것이다. 문화사업의 경요각을 병직이 '색시 양성소'라고 비판하는 부분도 한미관계의 젠더적 구조를 확인시킨다.

브라운에게서는 한미관계의 젠더적 관계가 비교적 적게 드러나지만, 문화연구를 담당하는 베커를 통해서는 깊은 내면화 단계를 보여 준다. 베커는 미국을 해방자라며 일본과 차별화 하면서, 미군정이 우익에게까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군정의 실패라는 병직의 지적에 대해 “조선인 자신의 과오도 있다”(114쪽)고 분명히 잘라 말한다. 브라운이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 개척과 연관되어 베커와 다른 것 같지만, 화순과의 대화에서는 브라운과 다를 바 없는 시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조선의 아내 조선의 어머니가 모두 그랬다가는 미국 상인은 캔디도 설탕도 우윳가루도 못 팔아먹고 우리는 여기 와서 있는 밥값도 못 뽑아내게 되겠지마는 조선을 미국의 상품시장화 한다고 야단이군요. 주는 것도 마다--친절한 것도 고마울 것 없다--어서 썩썩 가달라는 말입니다마는(170쪽)

최화순은 베커에게 미국서 온 상인이 너무 많다면서, 베커를 포함한 이들이 이권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모리배와 다를 것이 무어냐고 힐난한다. 화순에 이어 혜란도 미국의 수탈적, 문화제국주의적 속성을 꼬집는다. 베커는 좌익분자들만 그런 발언을 하는 줄 알았더니 우익까지 그러냐고 항의한다. 이 발언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좌익이 미국의 정체성의 핵심을 정확히 인식,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베커 역시 미국의 상품시장으로서의 조선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운과 별로 다를 게 없다다. 다른 점이 있다면 브라운이 처음부터 상품시장 개척이라는 구식민지 시대의 방법을 구사한다면, 베커는 문화연구를 가장하여 표면적으로는 문화연구의 틀을 빌리는, 문화제국주의적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염상섭은 이처럼 브라운과 베커를 통해 구식민지 시대와 신식민지 시대를 정확하게 가름하는 통찰력을 발휘한다.

호모아케리카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와 다른 미국 문화의 양상 및 오리엔탈리즘, 미국인과의 연애, 친일분자에 이른 새로운 기회주의자의 탄생 등이다. 해방직후 미국인을 서사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시킨 이 소설에서 대중독자들은 호기심과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재미’를 맛보게 된다. 한국인과 다른 미국인의 생활방식과 사고유형, 그러한 미국인과의

연애, 새로운 지배자에 향일성으로 다가서는 기회주의자의 부의 축적 등은 새로운 호기심과 부러움, 폭력성과 야만성 등으로 전달된다. 베커의 관심에 점점 빠져드는 혜란의 여심 및 병직과의 삼각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들, 그만 두겠다는 혜란을 지배인으로까지 승격시키면서 무역업에 이용하려는 이진석의 부의 욕망과 야만성, 브라운 부부 및 베커를 통해 드러나는 서양문화에 대한 새로움이 주는 신기성, 미국인의 한국 문화 예찬에 드러나는 오리엔탈리즘과 그에 내포되어 있는 한미관계의 젠더적 구조가 유포하는 선망성 등은 호모아메리카나와 관련된 대중성의 요소들이다.

3. 결어

이상으로 「1945년 8·15」「표풍」「해방」을 중심으로 해방 후 서사장르에서 대중성이 재편되어 가는 양상 및 젠더 연관을 검토해 보았다. 정치사 중심, 사건사 중심, 대표성 중심의 거대사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중들에 의한 '대중 유토피아 건설' 의지 및 '대중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등장인물들의 선택 및 젠더 연관을 고찰해 보았다.

세 소설에서는 '대중 주권'의 탐색과 '공적' '공통감각'으로서의 재미가 확인되었다. 「1945년 8·15」이 탐색한 대중 주권은 '실천(행동)'이며, '좌익' 지향이었다. 「표풍」의 '대중 주권' 선택은 '모색'이었다. 모색이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행동하기보다 거리를 유지한 채 한걸음 떨어져서 관망하고 재단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아직 어떤 것을 결정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실천(행동)'과 구별되며,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추구하면서 또 비합적이지도 비민주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해방」의 '회피 및 테러'와도 구분되었다. 특히 「해방」은 앞의 두 소설에 비해 선/악 이분법에 의거하여 우익은 긍정적으로, 좌익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1945년 8·15」에서 대중 주권이 '실천'되는 방법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하여금 혈연을 넘어 '정치적 여성-국민주체'로 일어서게 하는 과정과, 불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익의 역사적 필연성을 비-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데서 생산되는 재미였다. 「표풍」에서 대중 주권이 '모색'되는 방법은 당대의 문화풍경 묘사(정치풍경이 아니라)와 연애서사라는 장치를 통해서였다. 영어, 미국인의 사고방식 및 생활상, 댄스문화, 청년단, 골동품 가게 경요각 및 요정들, 백화점, 무역사업 및 품목 등이 자아내는 여러 풍경을 서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다. 「해방」의 재미는 추리서사와 연애서사의 통속적 결합에서 오는 젠더화 방식에서 산출되었다.

「1945년 8·15」「표풍」「해방」은 실천→모색→회피 및 테러라는 대중 주권의 변모과정을 드러내지만, 아직 '공적 영역'에 대한 '공통감각으로서의 재미'를 전제로 하는 재현 방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1950년대 중·후반 이후의 소설에 나타난 재미의 '사적 영역화'와 매우 다른 지점이었다.

이와 함께 여성 주체 형상화의 방법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드러내었다. 「1945년 8·15」에서는 남성 지도자의 교시에 의해 행동하는 여성이 아닌, 스스로의 성찰 및 자각에 의해 정치적 여성 주체로 일어서는 여성이 형상화 되었다. 이는 남성 주체가 가부정적 면모를 지닌 것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도 특이하였다. 「표풍」에 이르면 정치적 여성 주체로서는 탈락되며 연애의 주체로만 남게 되다가, 「해방」에 이르면 정치적 주체도, 연애의 주체도 아닌 성적 대상화의 영역으로 밀려 나게 된다. 이 과정은 선정성과 폭력성, 야만성이 강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표풍」에서는 성 역할 이분법에 의거하여 여성을 가정적 주체 또는 사적 영역에 위치시키려는 움직임이 드러났다. 특히 좌익-대중 주권자인 화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반공주의 가부장제'를 확인시키면서, 좌파 여성은 정치적 주체일지는 모르나 가정적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담론화 하였다. 이는 반공주의 가부장제의 시선이다. 여성 형상화를 통해 '공적' '공통감

각'으로서의 재미는 '사적' 영역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드러냈으며, 전체적으로 재미의 젠더화를 유도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영어구사능력 등을 포함하여 미국을 통해 신분 상승 및 부의 축적을 도모하려는 인물들, 즉 '호모아메리카나'가 대거 등장하게 된다. '호모아메리카나'는 '지주-기회주의자'에 이은 '제2의 기회주의'적 인물유형으로 배치되었다. 한미관계는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 동양/ 서양, 한국/ 아메리카, 여성/ 남성의 유비관계를 형성하면서 피식민지/신식민지 관계를 유포하고 있어 한미관계의 젠더적 구조를 확인시켜 주었다.

생활방식 및 사고유형이 다른 미국인과의 연애, 기회주의자의 부의 축적 등은 독자 대중들에게 새로운 호기심과 부러움, 폭력성과 야만성 등을 야기시켰으며, 서양문화에 대한 신기성 및 미국인의 한국(동양) 문화 예찬에 드러나는 오리엔탈리즘, 한미관계의 젠더적 구조가 유포하는 선망성 등은 호모아메리카나와 관련된 대중성의 요소들이었다.

해방 후 한국에서의 '대중 주권'에 의한 '대중 유토피아'의 탐색은 '정치' 문제라는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국가'가 배제되지 않았고, 젠더화라는 특징을 드러냈다. 이는 대중 유토피아 탐색의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준다. 젠더화 부분의 보편성 여부는 앞으로 폭넓게 더 고구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김남천, 「1945년 8·15」, 작가들, 2007.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김동리, 「해방」, 김주현 엮음, 「해방」, 「어문논총」 제38~39호, 2003.

2. 논문 및 단행본

김기협, 『해방일기』 1, 2, 너머북스, 2011.

김동석, 『한국현대소설의 비판적 언술양상』, 소명출판, 2008.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제26호, 2011. 229-261쪽.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김복순, 「제3세계관의 소설적 파탄」, 대중서사학회 신문연재소설팀 발표자료(미발간), 2009, 1~3쪽.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김재용, 「8·15 이후 염삼성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효풍』, 실천문학사, 1998, 340~366쪽.

김한식,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 『현대소설연구』 15, 2001, 229~247쪽.

박은태, 「김동리의 『해방』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06, 277~296쪽.

박헌호, 「김동리의 해방에 나타난 이념과 통속성의 관계」, 『현대소설연구』 17집, 2002, 252~270쪽.

서준섭, 「염상섭의 『효풍』에 나타난 정부 수립 직전의 사회, 문화적 풍경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28, 2009, 39~63쪽.

서형범, 「염상섭 『효풍』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115호, 2004, 52~88쪽.

손미란, 「전환기로서의 해방기 문학연구-김남천의 『1945년 8·15』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58호, 2010, 190~222쪽.

신형기, 『해방기 소설의 구조』, 태학사, 1992.

조남현, 「1948년과 염상섭의 이념적 지향」, 『한국현대문학연구』 6집, 1998, 293~325쪽.

나카무라 유지로, 『공통감각론』, 민음사, 2003.

Susan Buck Morss, 掘江則雄 譯, 『夢の世界とカタストロフィ』, 岩波書店, 2008.

Abstract

Gender and Reconstruction of Popularity after Liberation

-On Focusing the novels, *August 15th in 1945, Wind in the Dawn, Liberation*-

Kim, Bok-soon

In this paper the novels, *August 15th in 1945*, *Wind in the Dawn* and *Liberation* were looked over, focusing on the change of mass images in the genre and its relation with gender.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the amusement in the novels were combined with the common sense for the pubic sector. This shows difference from the novels in the 1950s, which were concentrated on the private sector. This change progressed gradually in the late 1940s.

We can see the change in the character of subject and the main change is genderization of amusement. In "August 15th in 1945" written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women are subjects not only in love affairs but also in the politics. However in "Wind in the Dawn" in 1948, women are only subjects in love affairs and in "Liberation" in 1949~1950 women are subjects neither in love affairs nor in politics. They are only the objects for sexual amusement.

In the other hand, many Homo_Americanas with English-speaking ablilty, who seek after the rise in the ladder of success and accumulation of wealth begin to appear in the 1950s. This means the genderiz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hip.

Key words : mass utopia, mass sovereignty, common sense, gendered interest, femine subject, homo-americana, gendered Korean-American relationship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